



## “수급자가 강아지 간식비 쓰는 걸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 식비는 아껴도 강아지들은 굶길 수 없어요. 저는 사고로 척추를 다치며 지체장애를 얻었어요. 요즘 그 부위가 악화 돼서 수술을 알아보고 있어요. 강아지 산책을 못시켜서 걱정이죠.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강아지를 돌볼까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수급자인데 강아지 식비, 간식비를 많이 쓰는 게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제게 강아지 들은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존재입니다.



**“야채라도 좀 넣어야 맛이 나는데  
이건 뭐 밀가루 맛 밖에 안 나요.”**

밀 국물도 고명도 없이 맹물에 끓여 김치국물만 살짝 두른 밀가루 국수. 수급자의 밥상은 기초보장제도의 투사다. 맹탕 복지를 바꿔 존중받는 수급자의 밥상을!



##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

지난 봄, 서천에 계신 부모님께 다녀왔다. 활동지원사가 전동 휠체어를 밀며 산 중턱에 올랐다. 어머님께 절을 하고 돌아 앉자, 활동지원사는 아버님께는 절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잠시 주춤하다 아버님께 절을 했다.

10살 무렵 단 둘이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결정으로 서천에서 서울 소재 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몇 건의 폭행 피해자가 되었고 시설을 몇 번 옮겼다. 2016년, 나의 몫이었을 수급비 일부를 손에 쥐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들어왔다. 탈시설 선배가 있는 곳이었다.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에서 5년을 머문 뒤 2021년 임대주택을 얻어 지역자립을 했다. 시설에 들어간 지 50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이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 내 삶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이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이제 나는 1년에 최소 3번 활동지원사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부모님 성묘를 가는 서천 여행이다.



## 막걸리가 주식이 된 사연

노숙을 하며 이빨이 몽창 빠졌다. 불규칙한 식사에 영양가 없는 음식, 돈이 없어 병원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씹어 먹는 음식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막걸리가 주식이 됐다. 사람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듯 난 하루 세끼를 막걸리로 때웠다. 거리에서 막걸리를 먹으면 술을 좋아한다는 오해와 눈총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막걸리를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는다. 쪽방살이를 거쳐 수급자가 된 지금도 값싸고 배부르고 씹을 필요 없는 막걸리와 즉석죽은 내 주식이다.

올 7월이면 70번째 생일이다. 지원금을 받아 임플란트를 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식비를 아껴줬다 어디에 쓰냐고 묻는다.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명절이나 어린이날에 손주들 용돈 챙겨주는 재미로 버틴다.



## 수급자의 절약법

30분 걸어가면 있는 동묘시장에 자주 가요. 유통기한 임박한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많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때문인지 몸 떨림이 심해서 화기를 다루기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웬만한 식사는 전기포트로 조리 가능한 컵라면이나 우유 같은 걸로 대신해요.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보다 인슐린 주사가 더 많아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당뇨가 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전부터 인슐린을 맞아왔는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수급신청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뇌혈관 검사는 비급여예요. 식비를 안 쓰고 남겨둬야 나중에 큰 돈 들어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어요.



## 걷다 보내는 하루

뭐 그리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냐고 사람들이 물어 봐요. 매일 아침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다가 쉬다가. 다시 걸음을 재촉해 백화점으로 가요. 거기 가면 문화공간이 있어서 편하게 쉴 수 있거든요. 가방에 고이 챙겨온 종이컵이랑 믹스커피를 꺼내고 백화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커피를 마셔요. 친구를 만나면 나눠 먹기도 하고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매일 걷기, 돈을 들이지 않고 바깥바람을 쐬 수 있는 나만의 일상이에요.



## “외식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쿵배달을 해서 밖에서 사먹을 일이 많은데 수급비로는 외식하기가 쉽지않아요. 6,7천원 넘어가는 음식은 안 사먹게 되죠. 3천원 짜리 짜장면이나 5천원 짜리 짬뽕 가끔 사먹어요. 붕어빵 몇 개로 저녁을 때우기도 하고 그럴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먹을 걸 받아 오면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월요일에 받아오면 수,목요일에 벌써 동이 나죠. 받아온 게 떨어지면 김치랑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워요. 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친형제가 정보를 알려줘서 최근에야 받아오는 거예요. 형님도 저처럼 생활이 어렵거든요. 이런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는 않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임대동과 본 단지가 분리돼있어요. 참 차별적이고 부당하다고 느껴지죠. 한편으론 주변에 저처럼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옆집 사는 어르신을 찾아서 제가 아는 정보를 나눠드리기도 해요. 할 수 있다면 복지제도를 모르는 분들한테 알리는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요.



## 요양병원 해방일지

지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 김치, 김, 짬아찌, 라면을 가져다준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한 달 동안 29일 87끼 중 7번의 외식을 제외하곤 라면을 먹거나 김치와 김 그리고 짬아찌에 밥을 먹었다. 노숙에서 벗어나고 요양병원에서 탈출하고 수급자가 되면서 느꼈던 해방은 인간다움에 미치지 못하고 정말 최소한으로 굶어 죽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에서 그쳐있다.





## 이토록 창조적인 쓸모

남순(가명)님을 처음 만난 곳은 서울역 광장이었다. 그녀는 단출한 짐으로 노숙을 시작해 차츰 관찰은 끝차와 비닐뿔개를 장만했다. 박스와 담요가 덧대어진 작은 끝차에 몸을 우겨 넣고 그렇게 겨울을 났다.

여러 번 복지제도에서 탈락했던 남순님은 꼬박 일 년 반을 거리에서 보낸 끝에서야 복지신청을 다시 하겠노라 용기를 냈다. 함께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를 여러 날, 봄에 시작한 신청은 여름이 지나 겨울이 될 때쯤 안정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활짝 웃던 남순님은 돈이 없던 시절 아랫마을에서 먹은 밥값을 갚고 싶다며 쌈짓돈을 꺼냈다.

코로나19로 증가한 마스크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걱정했는데, 남순님의 귀에 걸려있던 마스크는 한 번에 버려지지 않고 쌈지가 되었다. 이토록 창조적인 쓸모를 찾는 그를 정부는 "근로능력 없음"이라고 판정내렸다.



## 아픈 곳은 자꾸만 생기는데

기범(가명)님의 두 달 식비는 총 329,740원.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매일 열 알이 넘는 약을 삼킨다. 식사를 잘 챙겨야 하는데 이와 잇몸이 망가져 음식을 씹기가 힘들다. 치과에서 받은 견적은 250만원. 동사무소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병원비를 안 내는게 아니다. 새로 아픈 곳은 참아야 한다. 부족한 수급비로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힘드니 죽을 먹는다. 영양분을 적절히 섭취하지 못해서 그런가 속이 니글거려 가스활명수를 마신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어지러워 약초를 우려먹는다. 선택지가 없다.



## 저는 문을 안 잠그고 살아요

저는 문을 안 잠그고 살아요. 외출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고독사에대한 두려움을 안고 지내지요.

장제급여가 80만원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내 삶이 80만원 장례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장례에 참석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죽을 땐 모두가 혼자니까, 나 혼자 살아가다 언젠가 죽더라도, 내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이 나를 위해 장례를 치러줄 수있는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걱정거리 하나는 덜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며

수급신청 두 달이 지날 무렵 구청 복지담당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불가 하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와 1년 이내 통화한 것이 ‘가족 관계 해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하라 했습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활동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구청 직원은 그제서 잘못을 시인하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수급신청 세 달이 지나서야 수급이 확정됐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고 일처리를 했다면 이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구청과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의 이 같은 처사는 수급권자의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 하게 만들 수 있던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보장 받고 침해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나 단순한 연락 여부만으로 수급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 명동성당 농성을 결의하며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일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저생계비 아니 생존자체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때문입니다.”

“저는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기초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저에게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노점조차도 포기한 저에게 정부는 월 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2001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민중생존권쟁취를 요구하며, 최옥란

미래!  
연대

'선진국' 한국에서 빈곤층은 죽어간다  
복지기준선 대폭 상향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기준  
대!  
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됐다!  
혁.. 의료급여는 아니라...

TTT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의 자유공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한 현실적 지원을 하세요!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도 국민입니다

생계급여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2022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 당신의 월급이 한해 2%씩만 오른다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매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결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개별급여 개편에 따라 도입.

##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의 6) 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장받는 급여 수준을 의미.

## #한 해 2%씩만 오르는 수급비, 살만할까요?

: 최근 5년간 월세도 물가도 빠르게 올랐지만 한해 평균 2.7%씩만 오른 수급비만큼은 제자리였습니다. 빠듯한 기초생활수급비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수급자들의 절망은 단지 ‘부족함’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지출 사이에 우선순위를 거둬야 하는 피로감, 거의 모든지출을 실패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막막함. 매달 20일 통장에 찍히는 낮은 수급비는 가난은 단지 부족이 아니라 비참을 견뎌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중간값과 기준중위소득 차이 31%, 무슨일?

기준중위소득은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소득 중앙값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인가구 중앙값은 1인가구 기준 254만원, 4인가구 기준 636만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각각 194만원, 512만원에 불과해요. 즉,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고물가 시대 해결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한달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가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는 것은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효과와 현재 복지제도의 대상인 빈곤층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빈곤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수급자의  
존엄한  
일상을  
보장하고

내 삶이  
어려워졌을 때  
복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빈곤문제 해결의 일석이조!